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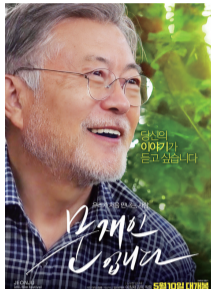
부지런하고 소신을 실천했던 '대통령 문재인'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이창재 감독 문재인입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 결과, 야권의 압승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에 제동이 걸렸다.

이미 예견된 결과였던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국민의 높은 민주주의 수준을 반영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앞선 편이다. 굳이 비교하자면 이웃한 동북아 국가들보다 앞선, 여·야가 교차로 대통령을 내놓는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 환경에서 언론과 시민들은 제각기 야당과 여당에 대한 개성 넘치는 견해를 나름대로 피력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들이 한데 뭉쳐 공권력을 넘어서는 위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또다른 견해들이 모여 전직 대통령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영화 '문재인입니다'

(유)엠프로젝트 제공

에 비해 '문재인입니다'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필자로서는 일견 안타까움이 이는 영화다. 영화에는 대통령직을 마치고 퇴임한 날로부터 낙향하여 평산마을 주민으로서의 삶을 잔잔하게 그리고 있어 인간 문재인을 담아내려 한 감독의 의도가 보였다. 양산의 평산마을 사저에는 남북대화의 물꼬를 상징하는 풍산개 한 쌍 마루와 토리도 있다. 청와대 관저를 이어받지 않은 현직 대통령의 의지가 풍산개 문제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인간 문재인은 정이 듬뿍 든 풍산개마저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국가에 돌려주는 일을 스스로 한다.

덧밭에 이리저리한 작물을 심고 아내가 좋아하는 꽃도 나무도 심어가며 덤수룩한 수업도 내비 둔 계절의 변화를 체험하는 자연인 문재인. 제멋대로 뿌

리 내린 당근과 돼지감자를 추수하며 껄껄 웃고 잡초도 꽃이라며 뽑는 것을 말리다 핀잔을 받는 평범한 일상이다. 그러나 길 건너에는 연일 태극기 부대들이 마이크를 들고 저속한 표현도 서슴지 않으며 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해 맹공격하는 시위를 벌인다. 소신과 과묵의 아이콘인 그라 하지만 얼마나 쓰라렸을까.. 필자의 가슴마저 아리는 대목이다. 보다 못한 평산마을 주민들이 이를 막아달라 성명을 발표하자 경찰의 제지가 이루어졌고 그제야 소음으로부터 평온을 되찾은 마을 풍경.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지런하고 소신을 실천하는 대통령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잘 극복하는 모범국가를 이루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야유 섞인 발언과 달리 국방정책의 위기도 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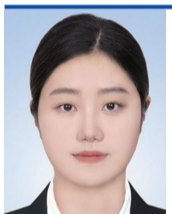
롭게 넘긴 것은 소신 덕이었다고 본다. 다만, 소신을 실현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이 무리수가 있었다. 집값의 역대급 고공행진과 더불어 중산층에게 부담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화근이었다.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던 필자 주변인들마저도 내심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을 현정권에서 털어 다행이라 여기는 정도라면, 결과적으로 다수 국민에게 가해진 경제적 고통을 읽지 못한 것이 된다. (시의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이 한발 더 빨랐더라면 부동산 문제는 자연 해결되었을 터였겠지만, 여든 시류가 그랬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꼽으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에이브러햄 링컨을 거론한다. 그만큼 격랑의 시기에 역사적 대위업을 이룬 리더였을 것이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쓴 위인 링컨. 그 또한 대통령 재임시 주변으로부터 맹공격을 받았을까. 링컨 대통령이 한 야당의원으로부터 "당신은 두 얼굴을 지닌 이중인격자"라는 공격을 받아, "만약 내가 두 얼굴을 가졌다면 하필 이 못난 얼굴을 들고 여기 나왔겠습니까?" 하는 유머로 웃어넘긴 일이 있었다 한다. 이렇듯 예나 지금이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현직 대통령을 향해 비판하고 공격하는 일이 당연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후대의 역사적 평가는 그 인물의 업적만을 기억한다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필자는 링컨 대통령 자료를 살피다 문재인 대통령과 닮은 점을 하나 발견하고 고소를 금지 못했다. '천천히 걷지만 절대 뒤로 걷지 않습니다.'

백제예술대학교 명예교수



'금테크' 열풍



취재수첩

박소영

취재1부 기자
soyeong.park@jnilbo.com

기원전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비금속을 금과 같은 귀금속으로 바꾸는 연금술이 성행했다. 고대 중국 도교 사상에도 금을 먹으면 신선이 돼 영생을 누린다고 했다. '금'은 신비로운 금속으로 위상을 높였으며 그 희귀성 때문에 고가치의 재화로 기능했다. 금의 가치는 1000여년 동안 추락하지 않았으며 오랜 시간 안전자산 역할

을 해왔다. 현재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등 '3고 시대'에 그 가치를 더욱 받고 있다.

금이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를 비롯한 국제 금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금값이 오르면 현물을 사가지 하는 사람이 늘었지만 이미 고점을 찍고 있는 금 가격에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도 많다.

이에 '블라인드'와 같은 직장인 커뮤니티는 물론 'X(엑스, 구 트위터)'에서도 ETF, 골드뱅크 등 현물이 아닌 금 관련 투자를 독려하는 게시글이 최근 한두 달 간 쏟아져 올라오고 있다. 한 엑스 이용자

는 본인의 ETF 수익률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하루 만에 커피 두어잔 가격을 벌었다'라는 글을 게재했으며 이와 함께 ETF 계좌 개설 방법, 투자 종목 선정법 등 세심한 팁을 정리한 게시글도 함께 올렸다.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1kg짜리 금 1g당 가격이 장중 11만700원을 기록하며 하루 새 3.17%나 올랐다. 금값은 금시장이 열린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금 거래량도 19만5122g으로 지난달 15일 6만7056g 대비 무려 190.98% 증가했다. 거래대금은 16일 기준 212억8762만원을 기록, 지난달 15일 61억9951만원과 비교해 67.84%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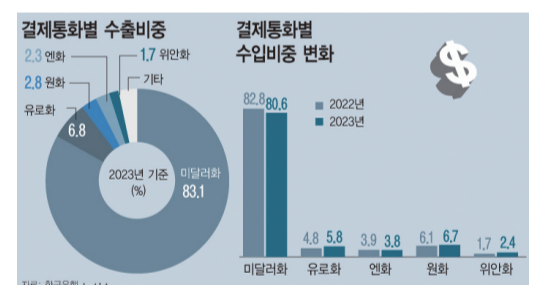
지난해 중반까지 8만원대를 기록하던 금값은 지난달 5일 9만810원을 기록하며 9만원대를 돌파했다. 이후 가격이 꾸준히

오르며 11만원대를 넘어섰다. 국제 금값도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장중 온스당 2400달러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값 상승 원인은 연중 이뤄질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이란-이스라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을 매입하는 사람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을 이러한 금값 상승이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금테크' 열풍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